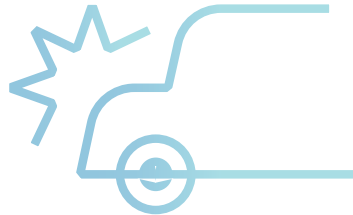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1부

내가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형언할 수 없는 긴 슬픔을 느꼈다.

몇 달 뒤,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해남에서 팽목항까지 걸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든 좋으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비를 쫓딱 맞으며 8시간을 걸어 도착했는데 관계자로부터 학생은 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족이 어린 학생을 보면 너무 힘들어 한다는 이유였다.

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 돌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었다. 노숙이라도 해야 하나 체념하던 차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눈에 띄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하룻밤을 묵게 해줬다.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부스에서 나와 등대를 향해 걸었다.

등대 난간에는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과 편지가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하나하나 읽으며 아주 오래 울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아직도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사복 차림으로 순찰을 하던 경찰이었다. 늦은 시간 학생 혼자 있는 게 걱정됐던 모양이다. 상황을 설명하니 부스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돌아가는 길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

나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로 어린 생명들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깊은 무력감을 느꼈고,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계 형사와 기자를 고민 중이라고 털어 놓으며 조언을 부탁했다. 그때 경찰이 내게 해준 조



언이 내가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오랜 시간 경찰 조직에 몸담아보니 보람과 한계를 동시에 느낍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써보는 건 어때요.”

2부

사망 현장에 도착하면 차에서 내리기 몇 분 전에 고인을 위해 성호를 긋고 잠시 묵념한다. 기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한참 전부터 성호를 긋고 눈을 감았다.

며칠 전,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그 여파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한 중학생이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이 가득했다. 마음이 미어졌다.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었다.

팽목항에서 기자가 되기로 다짐했던 고등학생은 시간이 흘러 그 다짐을 이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 죽음에 이토록이나 무력하구나.

사고 현장에는 숨진 학생을 추모하기



인터뷰에 응해준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시민들은 눈물과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다. 국화꽃 한 송이라도 내려놓고 싶었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했다. 국화꽃 대신 마이크를 들고 추모객들에게 얼마나 슬픈지 물었다. 슬픈 사람에게 슬픔을 설명해 달라는 게 참 실례인 줄 알기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곳곳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건 나와 의 약속 때문이었다.

취재 당시에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었다. 대신에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다뤄보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는 블라드(길말뚝)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문가는 보

행자의 안전을 위해 강도 규정을 강화한 길말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국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고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취재 원칙을 비롯해 애도를 방해하지 않고, 무리하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예의를 갖추고 추모객들에게 다가갔다. 추모객 한 명이 애도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줘 리포트를 구조적으로 잘 완성할 수 있었다.

3부



국화꽃 대신 마이크를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숨진 학생을 추모했다.

일을 끝냈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아냈다는 뿌듯함 보다는 속상함과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다. 퇴근길에 현장을 함께 한 영상취재기자 선배와 술을 한 잔했다. 안주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조용히 술만 들이켰다. 선배는 편집하며 사고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초 단위까지 쪼개 봐야 했으니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이다.

선배는 내가 추모객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느꼈던 미안함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신도 카메라를 들이밀어야 했으니. 선배는 그게 우리 직업의 비애이자 숙명이라고 했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슬프지 않겠냐고. 하지만 우리마저 슬픔에 빠지면 뉴스

를 만들 수 없기에 마음을 억누를 뿐이라고 내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술잔에 채워진 술을 털어 놓으며 ‘무더지면 편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속이 힘들어질지언정 무너지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12년 전에 팽목항에서 경찰이 내게 해준 조언대로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과 슬픔에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추적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머리를 갖춘 기자가 되고 싶다.

4부



다시 찾은 사고 현장에는 분향소가 설치돼 있었다.

보도 이후 개인적으로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마이크 대신 국화꽃을 들고 가고 싶어 동네에 있는 모든 꽃집을 방문했으나 구하지 못했다. 많은 추모객이 국화꽃을 구매해 간 것이었다. 빈손으로 가기가 미안해서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와 유행하는 과자를 골랐다.

날씨가 꽤 더워 목이 말랐을 텐데, 배고플 나이라 입도 심심했을 텐데. 계산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져서 혼이 났다. 도착한 현장에는 분향소가 설치돼 있었다. 무수히 많은 국화꽃을 비롯해 과자와 음료수, 편지, 우산 등이 놓여 있었다. 과자와 음료수를 내려놓은 뒤 묵념하고 고인의 명

복을 빌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어른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분이 고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여,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G1방송 송승원 기자